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독서: 미정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강선우 마르가리따		
이번주 미사 해설: 신정혜 세레나	봉헌금:	\$ 276
다음주 미사 해설: 유지원 카타리나	교무금:	\$ 1000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합계:	\$ 1276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유현영 사도 요한		
친교실 정리: 우리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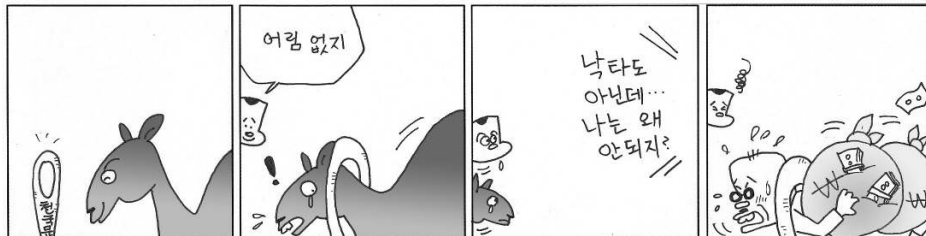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추후 공지
예비자 교리	매주 목요일(10 월 15 일) 저녁 8 시, 사제관, 김 아셀라 수녀님
학부생 성서모임	매주 월요일 저녁 8 시 30 분, 성당 사무실, 정원심 크리스티나

<복음계속>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 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연중 제 28 주일]

2009 년 10 월 10 일

<제 1 독서> 지혜서 7,7-11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제 2 독서> 히브리서 4,12-13 <하느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화답송

◎ **주님,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저희 날수를 해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햇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 마르코 10,17-30 <또는 10,17-27>

복음

그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연명 계속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오늘의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퇴장:

† <생명의 말씀>

와서 나를 따라라

구요비 옴 신부 | 프라도회 한국 책임

한국인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매년 실시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자료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39.2%), 가족 (28.9%), 돈(16.2%), 친구(4.8%) 순으로 비중이 크며 종교는 2.8%라고 합니다. ‘돈’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다른 연구조사에서 ‘나는 물질주의자이다’라는 비율이 50.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잘 아는 청년신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도 스스로없이 ‘그야 물론 돈이지요!’하고 대답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떤 부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우선, 이 사람은 높은 정신적·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이 선(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17절)

‘선은 모든 것이 욕구하는 것’(아리스토텔레스)이라면, 인간의 모든 욕망의 종점은 선이라 하겠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만물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선(善) 자체이신 하느님 한분 뿐이십니다(18절).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부자에게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21절)”하고 요청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부자는 주님의 이 고귀한 초대 를 거부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성 안에 근원적으로 선을 지향하고 갈망함과 더불어 이에 저항하는 뿌리인 물질적인 소유욕이 깊게 도사리고 있음을 밝혀줍니다. 교회는 ‘인간은 무엇을 소유(所有)하느냐 보다 오히려 어떠한 존재(存在)이냐에 따라 가치를 지닌다(사목헌장 35항)’고 가르치는데 인간이 ‘존재’로는 선(善)을 갈망하지만 실제로는 소유욕에 사로잡혀 주저앉고 마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 이율배반과 모순을 극복하는 길을 오늘 예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제시하십니다. 사실, 이 계명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부자유스럽게 하는 금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험악한 세상 안에서 무방비 상태로 던져진 나약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려는 하느님의 파스한 배려인 것입니다. 이 계명의 근본 의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외적인 삶을 규정하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율법이 아니라 선(善) 자체이신 하느님 앞에 우리가 서도록(18절), 또 율법의 완성이시며 그 자체이신 당신을 만나고 함께 살기 위하여 따라 나서도록(21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직면하는 외적 생활과 내면 생활의 분리, 신앙과 행동의 분열을 보게 됩니다. 이 이면에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불신과 불순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을 받아 누리기는 원하면서 이 하느님의 사랑에 인격적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비신앙의 풍토 속에서 신학자 본회퍼는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를 강조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응답이 바로 이를 말해줍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28절).

† <알려드립니다>

❖ 2009-2010년 예비자 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비자 교리는 김 아셀라 수녀님께서 담당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주변에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는 예비자분들이나 가톨릭 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리 수업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사제관에서 열리며, 다음 교리 수업은 10월 1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서모임이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성당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관심있는 학부 학생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에서는 따로 첫 영성체 교리반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영성체 대상 자녀를 둔 교우분들은 사목회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체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이은아 아네스 자매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 주소록을 업데이트 중입니다. 성당

홈페이지(<http://club.catholic.or.kr/thekccm>) 회원 주소록란에 올라와있는 주소록을 확인하시고, 혹 주소록에 빠져있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교우분들은 다음주일 (10/10)까지 정태준 요셉 형제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록이 확정되는대로 교우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식>

❖ 우리 공동체의 부모님 같으셨던 서기탁 마태오, 정효순 수산나 두 어른께서 오늘 미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떠나 메릴랜드로 이주하십니다. 두분께 항상 주님의 은총과 보살핌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우리 공동체의 김승욱 바오로, 이세희 헬레나 가족께서 미들턴쪽에 한국 식당 "K-Peppers" (1901 Kayuna St. Suite 110, Middleton, WI 53562. 전화 833-3189, 홈페이지: <http://k-peppers.com>) 를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두분께 항상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2구역 구역모임이 10월 11일 낮 12:30 부터 장기철 스테파노, 신정혜 세레나 가족 맥에서 있습니다. 2구역 교우 가족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마르 10.21).